

韓國 農業地理學의 研究動向 II ; 農業 立地研究의 成果와 批判

徐贊基*

본 연구는 해방이후 한국의 농업 지리학 연구 동향의 일환으로 농업 입지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밝히고 비판 한 것이다. 농업지리학 연구의 정수라고 일컬어지는 농업 입지 연구가 한국의 경우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업 공간의 협소성의에도 한국농업지리학의 후진성과 관련이 있다. 다만 연구건수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나 농작물, 낙농, 작부체계, 농업 노동, 산지 농업, 농업 재해등의 입지 연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이들 연구는 한국의 농업공간이 전통사회공간에서 경제공간으로 변화 된지가 비교적 최근인 사실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앞으로의 농업입지 연구는 거시적으로는 국민경제나 세계 경제와 관련된 연구, 미시적으로는 농민이나 농가수준에서의 연구, 지역적으로는 도시와의 관계나 지역농업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농업공간, 농업입지, 전통입지론, 作目, 작부체계

1. 서 언

1) 연구목적

세계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의 진척으로 세계적으로 산업구조와 그 공간구조가 재구조화(restructuring) 되어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자본주의화가 비교적 뒤떨어진, 농업과 농촌도 제2의 농업혁명과 농촌혁명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농업지리학의 의의와 성격도 재정립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농업 역시 소농적 반자급농업에서 소농적 상업농업으로 지향하게 되면서 농업공간 역시 生業의 원리에 의하여 규정된 공간구조가 경제 원리에 지배된 공간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농업 및 농업공간의 성격과 구조변화는 가히 서구의 제1차 농업 혁명에 견줄 만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UR협정에 따른 농산물 개방은 한국 농업과 농업공간의 구조 변화를 더욱 촉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환기적 시점에 있어서 해방이후 지금까지 약 200편에 이르는 한국 농업지리학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그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농업지리학연구의 특색과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한국 농업지리학 연구의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자는 1차적으로 한국농업지리학의 연구동향을 분석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한국 농업지리학은 태동기(1956-65), 정착기(1966-80), 발전기(1980-90)의 단계를 거쳐 90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역별로는 지역농업과 농작물 분포연구가 수적으로 다수를 점하였고 대표연구자로는 농업입지 연구에 김기혁 농업경영 및 농업지역연구에 서찬기, 농업의 역사적 연구에 김상호와 원경열을 들고 있다. 또, 한국 농업지리학연구의 문제점으로서 는 연구자의 과소와 농업공간 해명력의 부족, 학생논문 중심의 단발적 연구, 이론적 연구의 부족등 발전의 초기단계를 상징하는 제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동향 분석은 단지 해방이후 한국 농업지리학 연구에 관한 논문과 저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

서를 시기별, 연구영역별, 및 연구자별로 그 구성상의 특색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연구 동향 분석의 도입단계 이상의 의미는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서는 개개 연구의 연구내용과 성과를 정리하고 그 의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정하에서 우선 해방이후 1993년까지 수행된 한국의 농업입지와 관련된 13편의 연구¹⁾를 대상으로 그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의 농업입지 연구는 <표 1>에서와 같이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에 가장 활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주요 분석 항목은 연구 목적, 접근 방법, 조사 분석방법, 서술 방법 지역의 범위, 연구 시기 등이다.

그 중 접근 방법의 경우 우선 인문지리학은

물론 사회과학 전반과 관련지우기 위하여 철학적 관점에서 ① 經驗主義(Empiricism), ② 實證主義(Positivism)²⁾ ③ 人間主義(Humanism) ④ 構造主義 (Structuralism)의 4 접근 방법 중 어느 것을 취하고 있는가를 살핀 후 다시 산업입지론적 관점에서 ① 고전 및 신고전 입지론 즉, 전통산업 입지론 ② 行態論 ③ 기타 입지론의 세 가지 연구로 구별하였다.

또 분석 방법으로는 Harvey의 6가지 설명방식(1973, pp. 78-83), 즉 認知的 記述(cognitive description), 形態分析(morphometric analysis), 因果分析(cause and effect analysis), 時相分析(temporal mode of explanation) 機能·生態分析(functional and ecological analysis), 체계 분석(systems analysis) 중에서 다른 것과 중복되는 인지적 기술을 제외한 5가지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택하였다.

한편, 기술 방법으로는 記述的(descriptive) 연구와 說明的(explanative)연구 및 解釋的(interpretative)연구로 구분하고 연구지역의 규모로

표 1. 한국의 농업입지 연구

저자	년도	제목	발표지	권호	쪽수
金映秀	1969	都市近郊의 經濟作物選擇에 있어서 意思決定行態에 관한 研究	전남대논문집	15	473-481
李鶴源	1974	서울을 中心으로한 酪農立地에 관한 研究	地理學	10	61-81
徐贊基	1975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金基赫	1982	農村人口移動이 農業勞動力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叢	9	81-99
李鶴源	1983	韓國의 大規模 乳牛牧場의 立地와 分布에 관한 研究	地理學과 地理教育	13	37-52
金敏男, 李成珪 朴贊男	1983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農民 意識	農村經濟	6-4	77-90
金基赫	1984	大都市에로의 接近性變化가 農業人口構造에 미치는 影響	地理學論叢	11	95-110
金敏男, 李成珪	1984	主要經濟作物의 栽培決定要因 등에 관한 農民意識	農村經濟	7	27-34
柳承宇, 姜泰淳	1985	地域農業開發을 위한 農畜產物의 立地配置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 院, 研究報告	115	
全昌坤	1985	首都圈 酪農立地에 관한 研究	農村經濟	8-3	77-104
金基赫	1986	農業勞動力의 變化가 農作物 作付體系에 미치는 影響	釜山大學校 社會科學 論叢	5-2	329-346
Wook-Joong Kim	1989	Farmers Perception of and Adjustment to Typhoon Hazard on Cheju Island, Korea	地理學	39	93-114
玉漢錫	1991	田作物 選擇을 통해서 본 山地 住民의 環境適應 行態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보아 전국적 연구와 국지적 연구로 나누었다.

그 외에 연구성과의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상 농업입지와 관련된 성과만을 다루되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성과는 가급적 일반화하여 표시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 성격상 연구자의 주관과 편견이 개입되기 쉬운 연구이므로 본의 아니게 훌륭한 연구성과를 간과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미리 양해를 구한다.

2. 연구성과와 그 의의

1) 「都市近郊의 經濟作物 選擇에 있어서 意思決定 行態에 관한 研究」

이 연구는 신 기술 도입에 따른 농민의 적응성과 농산물 가격반응, 경영규모에 따른 위험 대응도와 의사결정의 태도등 도시근교 농민의 작물입지에 관한 의사결정 행태를 구명하려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60년대 서울 주변 지역의 표본조사 자료를 토대로 경험주의적이고 행태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였고 약간의 해석을 결정한 기술적 방법에 의해서 인과분석과 기능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① 도시 근교에서 경제 작물 선정의 의사결정에는 기상 변동보다 가격 변동 요인이 더 중요시되고 ② 작물선택은 전년도의 收量과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③ 경영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불확실 조건에 대한 반응도 예민하고 ④ 농가의 의사결정은 安定選好를 취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1) 농작물 입지 연구로서는 해방 이후 선구적 연구에 속하고 더구나 행태론적 연구로서는 국내 최초의 농업입지연구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2) 세계적으로 농업지리학에서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농업입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1960년대 초인 사실을 감안하면, 비록 연구자가 지리학자가 아니고 또 그의 연구목적이 농업지리학이 요구하는 목적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농업 지리학에 있어서 이 연구의 의의는 적지 않다. 그러나, (3) 이 연구

는 한국농업 공간에 관한 구체적 지역연구가 아니고 단지 도시근교 농업의 입지에 관한 개념적 연구에 그쳤으며, (4) 이 연구는 연구 副題에 명시한 것 처럼 게임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내용은 Gould의 연구(196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전형적인 게임이론적 입지 연구가 아니고, 단순히 농민 반응을 집계하는데 그치고 있는 점이 아쉽다.

2) 「서울을 中心으로 한 駱農立地에 關한 研究」

이 연구는 서울 주변 지역의 낙농분포를 입지적 관점에서 해명하려고 한 것이다.

70년대에 서울 주변 지역에 형성된 낙농지역에 대한 야외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험주의적이고 전통입지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설명적 기술(explanatory description)방법으로 기능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결과 ① 낙농입지와 거리와의 관계가 명백해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낙농업의 공간한계가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지형, 토지이용, 정책, 시간등의 요소와 낙농입지 또는 경영규모와 경영 조직 변화와의 관계도 밝혀졌다.

이 연구는 (1) 지리학자에 의한 국내 최초의 실증적 농업입지 연구로서 Thünen이론이 실로 90여년만에 한국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 1926년 미국의 『Economic Geography』지에 최초로 발표된 Trewartha의 낙농입지 연구(1926)에 비하여 약 50년 뒤의 연구이다. 또 이 연구는 (3) 70년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한국의 상업적 농업을 대표하는 낙농의 지역형성을 밝히므로써 한국 농업의 근대화에 따른 농업의 공간 변이(spatial variation)를 최초로 다룬 입지연구로서도 그 의의가 있는 것등 한국 농업지리학 최초의 전통 입지 연구로 평가된다.

3)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關한 研究」

이 연구는 농작물군의 분포와 그 요인을 입지론적 관점에서 구명하여 한국농업의 공간구조를 해명하려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1960년도의 시군별 농업 센서스 자료가 이용되었고, 실증주의적이고 전통입지론적 접근 방법과 설명적 기술에 의하여 형태 분석, 인과분석 및 체계분석이 시도되었다.

이 결과 ① 한국 농업공간에 있어서의 농작물의 분포가 공간 모델화 되었고 ② 각 작물(군)의 주요 분포요인과 각각의 농작물 분포에 미치는 영향도가 해명되었으며 ③ 作物複合型的의 공간 배치를 重力 理論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 ④ 한국의 농업 공간에 형성된 圖構造는 기능관계와 무관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1) 전국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농작물 입지 분석으로서의 국내 최초의 연구이고 더구나 상업화 이전의 전통 농업공간의 대표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또 (2) 중회귀모델을 이용하여 입지요인의 중요도를 최초로 계량화하고 농작물분포의 重心을 결정하는 것 등 한국 농업지리학 최초의 계량적 연구인 동시에 한국 지리 학계에서 계량지리학의 분석기법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연구로서도 그 의의가 있다. 1950년대 중반에 세계의 계량지리학이 성립한 사실을 감안하면 이 연구를 통하여 약 20년 만에 한국지리학계에 계량 지리학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 연구는 (3) 농작물의 공간분포를 중력이론으로 설명하고 圈구조의 형성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 등 농업 입지에 관한 새로운 공간이론 도입이나 개념의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4) 수치자료의 제약으로 농작물의 다양한 입지요인을 충분히 제시하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량분석의 기법이 지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 농업공간의 형성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 사회 문화적 성격 규명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4) 「農村人口 移出이 農業勞動力에 미치는 影響: 事例地域間 比較研究」

이 연구는 농촌인구의 移出 과정과 형태 및 그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사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과 설문자료를 토대로 경험주의적이고 전통입지론적 견지에서 접근하였고 계량분석 기법을 가미한 설명적 기술로 기능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성과 중에서 입지에 관한 성과만을 들면, “농업노동력의 부족이 농업기계화나 경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의 입지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힌 점이다.

이것은 ① 지역차를 소홀히 다루는 종래의 농업 및 농촌 연구의 문제점을 직시하는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개인이나 농가의 차원에서 분석하므로서 巨視空間分析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다만, 선정된 9개의 표본지역이 중부지방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적 경향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이 연구는 또한 ③ 80년대에 있어서 농업 노동력 부족과 경지이용 변화간의 관계에서 표출되는 지역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명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농업생산의 사회적 요소로서의 인구변화가 농업입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다룬점에서 주목되는 연구이다. 이것은 인구와 농업 발전, 또는 농업경영과의 관계를 논한, Boserup(1965)이나 Chayanov(1966)의 연구나 인구요인을 농업지리학 연구와 관련시킨 Henshall의 연구(1966)에 비하여 약 16-7년 뒤늦었으나, 다른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빨리 세계의 연구추세가 적용된 농업의 노동입지연구이다.

5) 「韓國의 大規模 乳牛牧場의 立地와 分布에 關한 研究」

이 연구는 한국의 대규모 유우목장의 입지요인과 시기별 분포를 구명하려는 연구로서 전국을 대상으로하는 80년대의 문헌자료외에도 표본지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면담자료를 토대로 경험주의적이고 전통산업 입지론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약간의 계량분석을 수반하는 기술적 방법에 의하여 형태분석, 인과분석 및 시상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성과를 입지부문에 한정시키면, ①

한국에 있어서 대규모 유우목장의 일반적 입지 요인으로서 접근성을 비롯한 5종의 요인과 대형 목장의 대도시 근교 집중요인을 명백히 하였다.

또, ② 대관령의 목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연구에서 목장입지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연구는 (1) 전술한 徐贊基의 연구(1975)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입지 연구이고 특히 80년대 한국의 상업적 농업공간을 대표하는 낙농의 입지연구라는 점에서 우선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2)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볼 때 『Economic Geography』지에 미국의 낙농지역에 관한 Hartshorne(1935)의 연구가 최초로 발표된지 약 50년후에 나온 한국 낙농지역 분포에 관한 연구이다. (3) 이 연구는 전국적 연구와 사례지역의 연구를 결합시킨 것이 돋보이나 양자간의 유기적 조화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4) 농업 입지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을 국내최초로 밝힌 점이다. 사실 농민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한 고전입지론이 최적모델을 아무리 수정 보완하여도 그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Greenhut (1956)는 입지요인으로서 개인적 고려(personal consideration)를 중요시 한 바 있으며 그 후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발달로 개인의 의사결정과정의 분석의 중요대상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의 입지연구 추세가 약 30년뒤에,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농업지리학에 반영되었다.

6)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農民 意識」 및 「主要 經濟作物의 栽培 決定要因 등에 관한 農民意識」

위 두 연구는 동일 주제의 전후편이다. 이 연구는 마늘, 고추, 양파의 作付體系와 재배여부의 결정요인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과 농민 계층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안배된 표본 농민으로부터 얻은 설문자료를 토대로 경험주의와

행태론적 접근을 하였으며 약간의 해석을 결들인 기술적 방법에 의해서 인과분석과 기능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결과 ① 경제작물의 작부 체계 결정에서 농민들은 농촌 지도소를 가장 중요한 情報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② 경제작물의 작부체계나 재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익성이고 ③ 또 이와 관련하여 경제작물의 재배면적은 전년도의 가격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④ 농민의 연령, 학력 및 경영규모에 따라 認知度에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1) 작부체계나 재배 여부 결정에 있어서 농민의 다양한 의식과 반응을 밝히므로서 농업 입지 연구에 있어서 행태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점에서 우선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또, (2) 농업 경제학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조사 연구는 수익성이나 가격 동향이 농민의 의사결정의 주요인임을 밝히므로서 지리학자의 공간물신주의(spatial fetishism)적 입지 연구 태도를 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역연구나 공간분석이 없어 순수 농업 지리학의 입지 연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아쉽다.

7) 「大都市에로의 接近性변화가 農業人口構造에 미치는 影響」

이 연구는 1970년대에 있어서 전국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성 변화와 상품작물의 분포 및 농업 인구구조 변화와의 관계를 구명한 연구이다. 실증주의적이고 전통입지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인과분석, 기능분석 및 時相分析을 하고 이를 설명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결과 ① 70년대에 있어서 각 농업 지역의 대도시에 대한 접근도 변화가 밝혀 졌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접근성의 변화가 시설작물 입지의 주요 요인임을 명백히 하였고, ③ 접근성과 토지이용 및 인구구조간에 유기적 관련이 있음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1) 근대화에 따른 한국의 공간 발전 (가령 접근도의 개선 등)과 농업경영

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 주목되는 동시에 (2) 접근성, 상품작물의 입지, 농업인구 구조간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구명하고 있어 입지연구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린 연구로 평가된다. 또 이를 통하여 (3) 한국의 농업 공간변이도 고전 입지론에 의하여 그 상당 부분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즉 최근 교통혁신과 더불어 협소한 국토공간상에서 영위되는 한국 농업의 경우 접근성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고전 및 신고전 입지론의 의의를 과소 평가할려는 경향에 대한 반론으로서 가치있는 연구이다.

8) 「地域農業 開發을 위한 農畜産物의 立地 配置에 관한 研究」

이 연구는 지역별 特化 作目 선정과 작부체계 조사를 주 목적으로 한 조사 연구이다. 1980년 농업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주의적이고 전통입지론적 접근을 통하여 형태분석과 체계분석을 기술적 방식에 의하여 시도하고 있다.

이 결과 ① 한국농업에 적합한 선형입지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② 시군별 특화작목을 선정하였으며 ③ 시군별 작부체계표를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1) 한국 농업공간의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위한 개념모델의 개발을 시도한 것은 하나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모델은 농업입지계획을 위한 개념모델이고 현재의 농업적 토지이용분석을 위한 실천적 입지 분석 모델이 아닌 것이 농업지리학적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감이 있다. 농업지리학의 입장에서 보아 이 연구의 의의는 (2)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를 이용하여 시군의 核心作目과 主産作目등의 特化作目を 선정하고 작부체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시군별 특화작목이나 작물 특화에 관한 연구로는 崔昌祚(1974), 徐贊基(1975, 1981), 金基赫(1985)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 연구는 모두 작목이나 작물군별로 시군단위의 분포도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이 연구처럼 특화작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또 작부체계까지 자세히 제시한 것은 아니다.

이런점에서 이 연구는 지역 농업 개발을 위한 응용적 가치는 물론이고 한국 농업지리학 연구의 공백부분을 메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9) 「首都圈 酪農立地에 관한 研究」

이 연구는 70년대의 수도권에 있어서 낙농지역의 형성과 그 공간변이를 입지론적 관점에서 구명한 것으로서 경험주의 및 전통입지론적 접근방법과 기술적 방식에 의하여 형태분석, 기능분석, 시장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 결과 ① 1970년대의 전국 젖소의 공간분포와 그 변화가 명백해지고 ② 70년대 수도권에 있어서의 낙농지역의 공간한계와 근교형 낙농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③ 수도권 낙농입지 요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하여 소비지와 거리요인 외에도 가공공장의 위치, 농가 수취가격, 발전단계, 지가, 소비시장등의 다양한 요인의 복합성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1) 수도권 낙농업의 공간변이, 입지요인, 성격 등에 대한 확실한 분석과 고찰을 통하여 수도권 낙농업의 입지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켰다. 특히 (2) 접근성 분석에서 통상적인 소비시장과의 관계는 물론 집유소, 우유처리장 등과의 접근성도 고려하므로써 낙농입지 연구를 진일보시킨 점이 주목된다. 그 외에도 (3) 연구전반에 걸쳐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돋보인다. 요는 이 연구는 70년대 한국 상업 농업을 상징하는 수도권 낙농업 입지 연구의 완성판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10) 「農業勞動力의 變化가 農作物 作付體系에 미치는 影響」

이 연구는 70년대의 작물구성(즉 耕種組織)의 변화양상과 이 변화와 농업노동력과의 관계를 구명하려는 것이다. 실증주의적이고 전통입지론적인 접근과 설명적 방법으로 기능 분석을 하였다.

이 결과 ① 70년대의 경종조직의 변화로 본 4종의 농업지역이 구분되고 ② 경종조직의 변화

가 농업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와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농업노동력에 관한 선행 연구(1982)에 이어 (1)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농업노동력과 농업경영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농업입지 연구로 우선 그 의의가 크다. Henshall(1966), Vermeer(1970), Turner 등(1977)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인구나 농업경영과의 관계가 농업지리학에서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된 시기가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인 것을 감안 할 때 다른 영역에 비하여 비교적 빨리 세계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연구는 (2) 70년대에 있어서 한국 농업공간의 분화를 명백히 하므로서 전통농업공간의 질적 변화가 진행중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러한 농업 공간구조의 재편이 도시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므로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徐贊基, 1988, pp. 69-105)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이 연구의 성과를 확대해석할 경우 (3) 한국의 농업공간도 이 시기에 와서 도시공업체계의 하부체계로 흡수되어 가는 세계농업의 추세를 따르기 시작하고 있으며 한편 발전론적 측면에서 볼때, 都市·工業衝擊이론(Urban-Industry Impact Model)의 적용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11) 「Farmers Perception of and Adjustment to Typhoon Hazards on Cheju Island, Korea」

이 연구는 제주도 농민들의 태풍재해에 대한 인지와 반응에 관한 연구로서 논리 실증적이고 행태적인 접근과 설명적 기술방법으로 기능분석에 주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기된 6개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농업입지와 관련된 연구성과만을 들면, ① 제주도민에게도 Burton, Kates, White 등에 의하여 제시된 適應理論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재해에 대한 대비도는 농민의 교육수준과도 상관이 있음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또 ② 태풍재해의 적응에 있어서 농민은 영농방법이나 작물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한편 전통적 대비책과 현대적 대비책을 다같이 적용하고 있음도 명백히 하였다.

이 연구는 (1) 국내 최초로 재해에 대한 농민 반응을 연구한 지리학논문으로서 우선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재해에 대한 세계 최초의 행동지리학 연구가 1960년대 초에 이루어진 사실과 비교할 때, 한국농업지리학에서의 재해 연구는 약 25년 뒤늦은 셈이다. (2) 농민의 재해에 대한 농업입지 반응을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제주도의 특유한 사회 문화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적시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입지분석으로 주목 할 만한 가치를 지닌 연구이다. 그외에 이 연구는 (3)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충실히 고찰하고 있는 동시에 국내의 농업지리학 연구 중 대표적으로 논리실증주의의 접근방법을 충실히 전개하여 과학성을 높인 연구로 평가되나 농민의 재해적응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빠져 있어 행태연구로서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12) 「田作物 選擇을 통해서 본 산지 주민의 環境適應 行態研究」

이 연구는 산지 농민의 작물 선택 전략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지조사와 면담 등을 비롯한 각종 조사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경험주의적이면서 행태적인 접근이 시도되었고 약간의 해석을 곁들인 기술방식에 의하여 인과분석과 체계분석이 행해졌다.

이 결과 가치있는 여러 사실이 밝혀졌으나, 농업입지와 관련된 성과만을 들면, ① 산지 주민의 작물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형의 고도와 경사, 농민의 연령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또 ② 산지 주민의 작물 선택전략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危險選好와 위험분산을 위한 複合營農의 두 전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③ 그 중 어느 전략을 택하여도 선택되는 작물은 산지 환경의 제약에 적응하는 작물이라는 사실

도 명백히 하였다.

이 연구는 (1) 60년대후반부터 趙東奎(1966, 1970)에 의하여 선도되고 李廣遠³⁾에 의하여 주도된 한국 산지농업 연구의 결정판으로서 그 의의가 크고 더구나 한국 산지농업(특히 경제작물)의 입지를 연구한 최초의 지리학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또 (2) 산지농민의 작물선택에 있어서의 전략과 제약요인 및 적응형태를 3 농업지역 유형별로 비교 고찰하는 것 등 미시적 농업입지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의 거시적 입지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것 등이 주목된다. 다만, (3) 적응전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생태학적 접근을 시도하려는 의도와 노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전개과정과 분석의 깊이에서 문화생태학적 접근이 가지는 특성을 명백하게 표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3. 연구방법의 동향

1) 접근 방법

철학적 관점에서 분류된 4종의 접근방법 중에서 한국 농업 입지 연구의 2/3가 경험주의적 접근방법을, 나머지 1/3이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인간주의나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한편도 없는 것이 특색이다. 더구나, 본 연구에서 실증주의적 연구로 분류된 것도 단지 계량분석 기법을 적용했을 뿐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실증주의 연구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입지 연구는, 그 접근 방법상으로 볼 때, 전통성, 고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또 80년대에 이루어진 연구가 전체의 2/3로서 탁월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한국의 농업입지 연구 시기는 1980년대에 의하여 대표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문지리학에서 구조주의와 인간주의적 접근이 정착된 것이 70년대부터이고, 構造化理論과 實在論이 지리학에 수용된 것이 80년대였다. 또, 실증주의가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지리학, 경험주의가 그 이전 시기의 지리학의 패러다임이었던 사실을 감안 할 때 한국의 농업입지연구

는 접근방법론상으로 20-30년 뒤늦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지리학 연구 자체가 다른 인문지리학 영역의 연구에 비하여, 방법론상으로 앞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있어서 농업 입지연구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뒤떨어진 것은 아니다.

한편 입지론적 관점에서 볼 경우 고전 및 신 고전 입지론을 포함하는 전통입지론적 접근이 전체의 2/3를 점하여 주류를 이루고 행태론적 접근이 나머지 1/3을 점하고 있다. 더구나 후자의 접근을 취한 4건의 연구 중에서 2건은 농업 경제학자에 의한 연구이므로 최근까지도 지리학자에 의한 행태적 농업 입지 연구는 겨우 시도 단계에 접어 든 것에 불과하다.

또 4건의 행태론적 연구는 perception을 중시하는 인간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모두 behavioralism에 입각한 실증주의적 접근이면서도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결여되고 반응 결과만 제시되어 연구의 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에 있어서 고전적인 농업입지 연구동향은 그만큼 한국 농업지리학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농업공간이 전통입지론 적용에 적합한 초기 자본주의 농업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2) 분석방법

형태분석, 인과분석, 기능분석, 사상분석 체계 분석의 다섯가지 분석방법 중에서 특정 분석방법 한가지만을 취한 연구는 4건, 2종의 분석방법을 결합한 연구가 4건, 3종의 경우가 4건으로서 비교적 다양하나 5종의 분석대상을 망라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가 없는 것이 주목된다. 또 사상간의 상호관계를 구명하는 기능분석이 전체의 1/3을 점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이어 입지요인을 구명하는 인과분석이 1/4을 점한다. 이들 두 분석을 합치면 약 60%가 되어 한국 농업 입지연구의 주 분석방법을 이룬다. 입지연구의 성격상 기능분석과 인과분석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경향이나 보다 입지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체계분석과 사상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는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지리적 사상의 결과만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process 연구나 發生論적 연구는 아니다.

3) 고찰과 서술방법

한국의 농업입지 연구는 그 목표상 아직도 개성 기술적(idiographic) 성격이 탁월한 것이 특색이다. Chakravarti와 Tiwari가 분류한 지리학의 네가지 연구방법에 준거하여 보면 개성기술적 연구가 압도적이고 문제해결적 연구는 겨우 그 흔적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방법론 개발 연구나 이론 및 법칙 정립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것이 그것이다. 지리학 연구에서 지역의 개성 추구는 당연한 것이긴 하나 전통 지리학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격을, 사회구조와 관련된 이론적 맥락속에서, 구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술 방법의 경우 사실의 객관적 표현방식을 의미하는 기술적 방식을 주로 취한 연구가 6건, 사실의 구조적 해명을 뜻하는 설명적 방식을 주로 취한 경우가 6건으로서 균형을 시현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비록 두 서술 방식의 판별은 애매모호하여 주관적 판별이 되기쉬운 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 실증주의 접근 방식을 취한 연구는 설명중심적이고 경험주의적 접근에서는 기술중심의 서술이 탁월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가치관을 중시하는 해석적 방법을 본격적으로 취하고 있는 연구가 전무한 것이 특색인데 이것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인간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농업입지 연구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金映秀, 金敏男 등, 玉漢鏞의 3건의 행태론적 연구에서 약간의 해석학적 서술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4) 기타의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12건의 농업입지 연구 중에서 자료수집과 조사방법으로 이미 발표된 통계

를 이용한 경우가 5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전국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대하여 설문방식과 현지조사가 각 2건씩이고 면담 조사가 1건, 여러 방법을 종합한 경우가 2건으로서 그 조사방법이 전체적으로 비교적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나 보다 정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현지조사의 강화가 바람직스럽다.

또 연구가 발표된 시기는 1980년대가 8건으로서 압도적으로 많으나, 연구대상 연도별로 보면, 60년대 2건, 70년대 4건, 80년대 6건으로 점증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 경제 발전과 더불어 농업의 경제적 입지 분석에 대한 관심과 재구조화 되어가는 농업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60년대 이전 자급농업 중심의 농업공간과 70년대 이후의 상업적 농업공간간의 공간변이 과정을 추구하는 process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지역의 규모는 전국규모와 국지규모가 각기 6건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으나 균형적 연구를 위해서는 국지연구의 대폭 강화가 요구된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전국 규모의 연구는 본격적 입지분석을 위한 입문 단계나 서론적 연구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고 국지연구의 성과를 종합한 진정한 의미의 계통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4. 결 언

농업입지 연구는 농업지리학연구의 정수이다. 특히 공간분석적 지리학에서 그러하다. 그것은 고도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기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입지적 성격이 농업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농업지리학 연구에서 접하는 농업입지 연구의 비중과 내용수준은 그 국가의 농업지리학 연구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농업지리학 연구에서 농업입지 연구의 비중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가장 낮다는 사실은 농업공간의 규모가 비교적 협소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

로는 그 만큼 한국 농업지리학 연구의 후진성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분석 방법 등의 관점에서 평가 할 때, 한국 농업지리학연구는 세계적인 인문지리학연구 추세에서 약 20-30년 정도 뒤늦은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세계의 농업지리학 연구 역시 발전이 뒤늦은 사실을 감안하면 그 발전격차는 훨씬 줄어든다. 더구나, 한국의 농업입지 연구의 후진성이나 보수성은 전통적 사회공간으로서의 농업공간이 근대적 경제공간으로 전이된 시기가 비교적 새롭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즉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산업 입지론의 적용이 한국 농업의 경우 최근까지도 상당히 제약을 받아 온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입지론의 제한적 적용하에서도 고전, 신고전입지론을 포함하는 전통입지론의 공간 설명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직도 한국의 농업공간이 초기 자본주의 경제공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후진성과 여러 문제를 지닌 입지 연구이긴하나, 한국의 농업입지 연구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름대로 한국 농업공간의 입지적 성격을 해명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작물과 낙농의 입지, 작부체계, 농업노동, 산지농업, 농민의 재해반응 등에 관한 입지연구가 그러하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국제화에 따른 산업구조의 재편과 거기에 따른 공간의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를 맞아 한국 농업의 입지연구가 지향해야 될 방향과 수준은 지금까지의 그것과는 상당정도로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농업입지 연구는 농업만의 폐쇄적 연구에서 벗어나 도시·공업체제나 국민경제, 국제경제와 관련하여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구조화나 調節理論등을 비롯한 구조주의적 접근이나 연계를 중시하는 체계론적 접근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농업공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자본축적과정, 자본의 농업부문간 경쟁적 이동관계, 외부여건 변화에 대한 농가의 적응형태 등 세가지 수준에서의 연구에 의

의가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한국 농업지리학에서도 구조화이론이 적용된 연구와 실재론적 접근도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농민이나, 농가 수준의 연구도 일층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민의 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보다 정세한 행태론적 접근은 물론, 문화생태학적, 해석학적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신지역 지리학(New Regional Geography)의 관점에서의 지역농업연구와 발생론적 연구, 문제·해결적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론적 연구도 시도하여 한국의 농업입지연구를 심화하고 그 수준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註

- 1) 해방 이후 1993년까지 한국의 농업 입지 연구는 본 연구자가 인지하고 있는 13편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농업입지와 관련된 연구라도 그 연구의 중심과제가 입지 문제 이외의 다른 영역에 두어진 연구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 본 연구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논리실증주의 접근방법 즉 가설의 설정과 검증을 통한 일반화나 법칙추구적 연구는 물론 계량적 기법에 의한 空間分析的 연구도 실증주의 연구로 간주하였다.
- 3) 李廣遠의 연구는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發刊 圖書目錄(1994) 참조.

文 獻

- 徐 贊 基, 1981, 韓國의 農作物分布와 그 地域構造, 地理學, 23, 15-36.
- 徐 贊 基, 1988, 韓國農業의 地域集中과 地域構造變化: 1960-80, 教育研究誌, 30, 69-105.
- 徐 贊 基, 1993, 韓國農業의 地理學의 研究, 成文社, 대구.
- 趙 東 奎, 1966, 韓國의 火田, 地理學, 2, 57-65.
- _____, 1970, 高冷地 土地利用의 變貌; 大關嶺의 農業의 土地利用을 中心으로, 地理學, 5, 19-30.
- _____, 1970, 太白山地域의 土地利用行態의 分

- 析, 地域開發研究論文集, 3, 20-28.
- Boserup, E., 1965, *The Conditions of Agricultural Growth : The Economics of Agrarian Change under Population Pressure*, Allen and Unwin, London.
- Bowler, I.R., 1984, Agricultural geography, *Progress in Human Geography*, 8, 256-262.
- Bowler, I.R. and Ilbery, B.W., 1987, Redefining agricultural geography, *Area*, 19, 327-332.
- Chakravarti, A.K. and Tiwari, R.C., 1990, A basic research paradigm in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89(2), 53-57.
- Chayanov, A.V., 1966, On the theory on non-capitalist economic systems, in Chayanov, A.V., et. al.(eds.), *The Theory of Peasant Economy*, Richard D. Irwin, Homewood, Illinois.
- Cloke, P., Philo, C. and Sadler, D., 1991, *Approaching Human Geography :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Theoretical Debates*,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Fould, W.C., 1971, *A Theoretical Approach to Rural Land-Use Patterns*, Edward Arnold, London.
- Greenhut, M. L., 1956, *Plant Location in Theory and Practice ; The Economics of Space*, The Univ. of North Carolina Press, Chapel Hill.
- Gould, P.R., 1963, Man against his environment ; A game theoretic framework, *Annals of A.A.G.*, 53, 290-297.
- Gregory, D. and Urry, J.(eds.), 1985,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 Hartshorne, R., 1935, A new map of the dairy areas of the United States, *Econ. Geogr.*, 2(4), 347-355.
- Harvey, D., 1973, *Explanation in Geography*, Edward Arnold, London.
- Hayami, Y. And Ruttan, V.W., 1971, *Agricultural Development ;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 Henshall, J.D. 1966, The demographic factor in the structure of agriculture in Barbados, *Transactions of I.B.G.*, 38, 183-195.
- Hudson, R., 1990, Re-thinking regions ;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on regions and social change, in Johnston, R. J., et. al.(eds.), *Regional Geography ;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Routledge, London.
- Johnston, R.J., 1984, *Philosophy and Human Geography ;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Approaches*, Edward Arnold, London.
- Marsden, T., 1988, Exploring political economy approaches in agriculture, *Area*, 20-4,
- Peet, R.(ed.), 1987, *International Capitalism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 A Critical Analysis*, Allen & Unwin, Boston.
- Pred, A., 1985,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 enclosures, social change and the becoming of place in Skåne, in Gregory, D. and Urry, J.(eds.),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s*, Macmillan, London, 337-365.
- Trewartha, G.T., 1926, The green county, Wisconsin, foreign cheese industry, *Econ. Geogr.*, 2(2), 292-308.
- Turner II, B.L., Hanham, R.Q. and Portararo, A.V., 1977, Population pressure and agricultural intensity, *Annals of A.A.G.*, 67, 384-396.
- Vermeer, D.E., 1970, Population pressure and crop rotational change among the Tiv of Nigeria, *Annals of A.A.G.*, 60, 299- 314.

The Review of Agricultural Geography on Korea, Part Two : the Outcomes and Critiques of Location Studies.

Chan-Ki Suh*

Summary

As Korean traditional peasant farming has come to a commercialization since 1970s, the spatial structure of Korean agriculture also has been gradually restructured by principle of not subsistence but economy. This epochal transformation of agriculture and its spatial structure in Korea are comparable with the first agricultural revolution in Europe.

Facing this turning point, it is essential to redefine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agricultural geography in Korea through the review of the outcomes of about 200 studies published since 1950s in Korea of which twelve is concerned with locational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trend and characteristics of location studies on Korean agricultur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1) Since 1950s the location studies of agriculture recorded only 12 papers which occupy no more than 6% of studies of agricultural geography in Korea. This fewness suggests that the location study of agriculture in Korea is yet at the stage of begining.
- (2) In spite of the fewness the studies, carried out mainly in 1980s, contributed considerably to clarify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Korean agriculture especially in the spatial variations of crops, dairy farming and cropping system, the impacts of agricultural labors, the location strategy of mountain agriculture, and the responses of farmers to hazard.

- (3) In approach and methodology, two thirds of the studies has taken traditional empiricist view and other, positivist.

And most studies adopted classic and neo-classic locational theories as their theoretical base in description and explanation.

In degree of development, the location studies of agriculture in Korea seems to be about 20 years delayed compared to that of the advanced countries in terms of approach and methodology.

- (4) Such tradition of the location studies reflects not only the conservative nature of agricultural geography of Korea but also the early stage of capitalism of Korean agriculture.

Key words ; agricultural space, agricultural location, traditional location theories, enterprise, cropping system.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